

제주선수단 ‘금빛 질주’... 종합 9위 도약

수영·육상 메달밭... 금 32개 등 75개 수확
강성범·강민혜 첫 3관왕... 목표 150개 순항

지난 11일 막을 올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은 메달밭인 수영과 육상에서 강세를 이어가며 종합 9위로 올라섰다.

제주선수단은 첫날 수영에서 금 메달 4개 등 7개, 육상에서 금메달 2개 등 총 20개의 메달을 따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12일에는 덴스스포츠 강성범·강민혜 조가 3관왕에 오르고 수영에서 금메달 7개가 쏟아지며 금 10개, 은 5개, 동 3개 등 18개의 메달을 추가했다. 13일에도 금 14개, 은 8개, 동 13개 등 35개를 추가하며 메달 150개 이상, 종합순위 12위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대회는 16일까지 열린다.

◇수영·육상 메달밭 역할 톡톡=수영은 11일 금 4·은 3개, 12일 금 7개에 이어 13일에도 금 6개 등 12개의 메달을 추가했다. 첫날 여자 S8 자유형 200m에서 우승한 한인호는 13일 여자 평영 50m SB7에서도 정상에 올라 2관왕이 됐다. 고준혁은 남자 배영 100m S6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3회 연속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이영호는 남자 평영 50m SB4, 강수정은 여자 평영 50m SB9에서 각각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육상에서는 강현중과 강별이 2관왕에 올랐다. 강현중은 남자 800m T37에 이어 400m에서도 정상에 올랐고, 강별은 여자 원반 던지기 F37에 이어 창던지기 F37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2회 연속 2관왕을 달성했다. 이선희는 여자 100m T37에서 16초13의 한국 신기록으로 정상에 올랐고, 이동규는 남자 100m T37, 이동원은 남자 100m T20에서 각각 금메달을 보태 제주가 남·여 100m에서 동시에 정상에 올랐다.

◇댄스스포츠 3관왕 쾌거=강성범·강민혜 조는 혼성 콤비 라틴 파소도블레 Class 2와 라틴 5종목 Class 2에서 정상에 올라 5년 연속 2관왕에 오른 데 이어 혼성 프리스타일 콤비 Class 2에서도 우승해 제주선수단 첫 3관왕에 올랐다. 역도 양우혁은 금 2·은 1개를 수확했고 테드립트 216kg으로 한국 신



장애인체전 개최식 선수단 입장.

기록, 종합 394kg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골프에서는 박대희와 성정자가 파크골프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했고 김선천이 동메달을 보냈다. 태권도 한국현·조민수, 펜싱 김민석·우진주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첫 출전한 트라이애슬론에서는 김종관이 은메달, 박종호·신동철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탁구 남자 단체전 CLASS 6~7에서는 문성태·이정구·정상섭·정윤희가 사상 처음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좌식배구와 배드민턴, 게이트볼, 론볼도 4강에 올랐다. 제주선수단은 13일 오후 5시 기준 사전경기를 포함해 금 32개, 은 20개, 동

23개 등 총 75개의 메달을 기록하고 있다.

◇개회식 ‘무한의 우주를 열다’=지난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은 ‘무한의 우주를 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성화 최종 주자는 배드민턴 박민경 선수가 맡았고 선수대표 선서는 배드민턴 이대성 선수와 육상 강별 선수가 공정한 경쟁을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뛰어넘는 위대한 도전의 현장이자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저력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손흥민, MLS 12호 도움... LAFC는 꼴찌
울시즌 7골 19도움... 팀은 캔자스시티에 1-3 패

미국 프로축구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뛰는 손흥민이 리그 12호 도움을 작성했다.

손흥민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의 스포팅 파크에서 열린 스포팅 캔자스시티와 2026 메이저리그사커(MLS)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이 0-2로 뒤지던 후반 2분 드니 부앙가의 추격골 과정에서 ‘간접 도움’을 올렸다.

손흥민이 왼쪽으로 내준 공을 받은 제이컵 샤펔버그가 문전으로 땅볼 크로스를 넘겼고, 이를 쇄도하던 부앙가가 오른발로 마무리해 득점했다.

MLS에서 인정되는 간접 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올 시즌 도움을 12개로 늘렸다. 리그 도움 순위에서 리오넬 메시(13개·마이애미)에 이은 공동 2위에 자리했다.

리그에서 득점은 5개를 기록한 손흥민은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의 2골 7도움을 더해 공식전 7골 19도움을 올렸다.

손흥민은 슈팅은 3개 시도했다. 전반 18분 안드레 루이스가 오른쪽에서 LAFC 수비 하나를 제치고 날린 원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낸 캔자스시티는 전반 31분에는 테일러 칼헤이라가 문전에서 머리로 밀어 넣어 뽑아낸 골로 2-0까지 달아났다.

LAFC는 손흥민이 기여한 골로 한 점을 따라붙었으나 후반 26분 제이컵 바틀릿에게 썬킥골을 얻어맞고 2점 차 완패했다.

꼴찌 팀(승점 18)인 캔자스시티에 일격을 당한 LAFC는 서부 콘퍼런스 15개 팀 중 5위(승점 40)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연합뉴스

제주SK 아쉬운 무승부... 4경기 연속 무패

K리그1 29라운드 부천FC와 원정경기 2-2
아이아스 이탈로 나란히 1골 1도움 기록

제주SK FC가 부천FC1995와의 맞대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에 실패했다.

제주SK는 지난 12일 오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는행 K리그1 2026’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아이아스와 이탈로가 나란히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멀티골을 합작했다. 연승에 실패한 제주SK는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를 이어가는데 만족해야 했다. 제주SK는 경기 시작과 함께 전

반 3분 토비아스의 자책골로 리드를 내줬다.

반격에 나선 제주SK는 이탈로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전반 41분 이탈로가 아이아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뒤 문전 앞에서 가볍게 마무리하면서 동점골을 터뜨렸다.

기세가 오른 제주SK는 전반전 추가시간 3분 이탈로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아이아스가 강력한 헤더로 연결하면서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후반 18분 상대 역습 상



12일 부천과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넣고 환호하는 제주SK 아이아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황에서 갈레고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제주SK는 후반 35분 아이아스가 문전 앞에서 가슴 트래핑 후 환상적인 발리슈팅을 시도했지만 크로스바를 강타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제주SK는 후반 43분 박수빈 대신 김진진을 교체 투입하며 역전골

을 노렸지만 더 이상 골은 터지지 않았고 결국 이날 경기는 2-2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제주는 11승10무8패, 승점 43으로 리그 4위를 유지했다.

경기 후 제주SK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은 “예상대로 어려운 경기였으며 일단 실점을 너무 빠르게 허용했다”며 “후반전에는 골대를 두 번이나 맞히는 등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코스타 감독은 강원 원정에 대해서는 “매 경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강원전도 준비하겠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강원은 제주SK를 상대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SK는 오는 20일 강원FC와 30라운드 원정 6연전 중 세 번째 경기를 갖는다.

위영석기자

한국 축구 ‘임시 소방수’ 모레노 감독 입국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임시 소방수’로 선택된 로베르트 모레노(스페인)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이 코칭스태프와 함께 입국, A매치 6경기 지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

모레노 감독은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신을 보좌할 코칭스태프 5명과 함께 한국 땅을 밟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 이후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의 후임을 찾기

위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 채용 형태로 임시 사령탑 채용에 나섰다.

축구협회는 모레노 감독이 대면 면접 과정에서 독보적인 열의와 한국 축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줬다며 지난 1일 임시 사령탑으로 결정했다.

축구협회는 전임 지도자로 활동하는 조용형 코치와 이재홍 피지컬 코치를 합류시켜 코칭스태프 구성을 끝냈다.

연합뉴스

표선마을교육공동체 북콘서트

지역이 살려면 교육이 살아야 하고, 교육이 살려면 지역이 살아야 한다.

연사: 강희철 前 표선면장, 이동연 마을 디자이너

〈표선마을교육공동체〉만들기 활동 방법 제안
서논술형 평가 중심 입시변화와 IB학습 소개



북콘서트 예약 큐알

행사 일시 9월 22일 (화) 오전 10시 ~ 12시
예약 문의 010-5620-8041
행사 위치 표선면사무소 대강당 (선착순 100명)

